

[신정론]

악의 기원에 대한 기독교의 세 가지 견해

1. 어거스틴: 인간의 자유의지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한다 / 하나님은 완전한 피조물을 창조했다 / 하나님은 일부의 피조물에게 자유선택의 능력을 주셨다 / 그런 피조물의 일부는 자유롭게 악을 선택했다 / 하나의 완전한 피조물이 악을 유발한 원인이 된다.

악의 실체론에 대한 어거스틴의 해결방식은 1.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 했다. 2. 악은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의 결핍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직접 창조하지 않았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완전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존재의 결여를 가진다)

2. 이레니우스: 인격형성의 신정론

신의 형상과 신의 닮음을 구분했다. 형상 = 창조주와 교제가능한 지적 피조물의 인간적 존재의 본성이고 닮음 =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에 완성될 인격적 존재의 본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원죄는 인간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의 발전을 위한 과정을 본다는 것이 의견인 것이다.

3. 과정신학적 견해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 데이빗 그리핀의 주장)

1) 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2) 우주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신도 포함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3) 신은 우주의 법칙에 종속된다 (초월적 신의 존재를 부인함)

- 전쟁에 대한 성경적 관점

1. 어떤 전쟁은 개인과 국가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궁극적인 요인은 "정욕과 욕심" "정복전쟁이다"

2. 하나님은 역사에서 어떤 전쟁을 허용하시는 경우이다. 첫 번째로 개인, 국가의 죄의 결과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를 들어 가나안의 죄. 이스라엘의 죄., 앗수르의 죄, 바벨론의 죄가 있다. 두 번째로 전쟁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의 실체가 드러난다. 타락한 본성은 평화시기엔 탐욕, 전쟁에선 사악함이 들어남을 주장한다. 세 번째로 전쟁 이전, 전쟁 중, 전쟁 후에 대한 교훈이며 궁극적인 목적(회개, 돌이킴, 공의)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 자연재난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

1. 아담의 타락으로 자연의 저주가 시작되었고 2. 타락한 세계 안에 죄없는 사람은 없다. 3. 자연재난은 아담의 타락이후 피조계에 생긴 것이고 4. 자연재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된다는 점이다.

- 신정론 강의의 근본적인 목적

악인이 형통해도, 악이 득세를 해도,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신앙체험 논증]

- 변혁적 체험의 인관관계에 의한 논증

1) 어떤 변화에는 그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 있다. 2)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 변화된 삶을 산다. 3) 그 변화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논증

1) 크리스천의 신앙체험은 다양하다(중생, 신유, 성화, 기도응답 등) 2) 이런 다양한 체험은 공통된 하나의 요소를 갖는다. 3) 크리스천의 신앙체험은 주관적이지만, 동시에 객관적이며 역사적 사실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 거룩한 존재에 대한 신령한 체험 논증(직접 인지)

1) 직접 인지 논증은 사람들이 초월적인, 거룩한 인격의 신의 존재를 직접 인식할 수 있다. 2) 감각인지 행위는 대개 진정한 경험의 근거가 된다. 3) 누미노제 경험(신의 임재경험) - 시내산에서 모세의 경험, 파스칼의 경험, 바울의 경험... 4) 감각행위와 누미노스 인지행위는 유비적 관계이다. 5) 결론: 기독교의 전체 진리를 신령한 체험에 의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령한 체험논증은 강력하며 개인에게 실존적 여파를 가져온다.

- 기독교의 변혁적 체험의 목적(거룩함)

1) 황홀경의 경험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일부 종교는 황홀경을 추구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기도 한다. 기독교는 감정상의 황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네 종류의 땅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2) 일부 종교는 영적 황홀경을 약속하지만, 기독교는 신자들에게 고난과 기쁨 둘을 이야기 한다. 이 땅에서 고통, 역경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 3) 성령의 임재는 은사와 열매로 나타난다.

[성경의 권위 & 예언 성취 논증]

- 성령의 증언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한 논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 성령의 역사가 늘 수반되기 때문. /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수반되지 않으면 설득되어 믿을 수 없다(칼빈)"

- 성령의 내적인 증거

: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식하지 못함, 따라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필요함
성경의 권위의 확실성은 성령의 내적인 설득으로 생심, 성경의 외적인 증거들은 그 때 재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함,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1)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1817개이다 2) 성경 본문의 27%는 예언과 관련된 것이다 3)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특징은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명이며 일반적, 과학적으로 예측되지 않는 예외적인 것이며 정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드문 사건이라는 점이다

- 성경의 외적 권위

: 성경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도록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전달되어 왔다. / 성경은 무신론자, 펍박자, 적그리스도들, 고등비평, 공산주의자에 의해 공격을 받았으나 온전히 보존되어 왔다.

- 성경신뢰에 대한 문헌학적 고려

1) 엄청난 수의 필사본들 2) 신중하고 엄격한 필사의 방법과 규칙들 3) 고고학적 자료들 4) 성경 이외의 신뢰할 만한 역사적 자료들

[신존재논증 - 존재&본체론적 논증(선험적 논증)]

- 우주론적 논증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은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이 있어야 한다. 만물을 발생하고 있게 한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논증방식

1) 아퀴나스의 5가지 방식

운동에 의한 증명(최초의 원동자로서의 신) / 원인에 의한 증명(최초의 작용인으로서의 신) / 우연적 존재(인간과 자연)와 필연적 존재(신) / 사물의 완전성 단계: 최고선, 최고 진리(모든 완전성의 원인인 하나의 최고존재로서의 신) / 만물의 질서와 조화: 만물의 합목적성을 갖게 하는 하나의 지적인 존재로서의 신

2) 라이프니츠 논증

- 라이프니츠의 충족이유율

1) 모든 우연적 개체는 왜 그것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존재한다. 2)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의 존재를 위한 이유가 있으며, 다른 존재들의 인과적 효과성 혹은 존재하는 것 고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한 것이다. 3) 완전한 의미에서의 충분한 이유: 어떤 특정한 존재의 존재를 위한 충분한 설명 -> 이 충분한 설명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총체적인 설명이어서 그 설명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 버트런트 러셀의 반증 :

1) 만일 모든 것이 원인을 가져야 한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원인을 가져야 한다. 2) 만일 원인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세계도 원인없이 존재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기독교의 우주론적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

[신존재논증 - 칼람 논증(후험적 논증)]

- 현대의 우주론적 논증

실제적 무한이 불가능하다면, 사건의 연속은 유한하다.

1)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2)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3) 그러므로 우주는 원인이 있다. 대전제가 존재하며 이는 "무엇이든지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1) 아무 원인없이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없다. 원인없이 생기는 것은 과학적으로 관찰된 적이 없다

2) 양자물리학의 반증은 설득력이 없다. 양자는 양자진공과 에너지 바다가 그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에너지 바다"는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

두 번째, 우주는 시작이 있다. 1) 수학적 추론으로 지지이며, 우주의 과거에는 무한 수의 사건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 2) 과학적 추론으로 지지이며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 중력이론"으로 우주는 정지상태가 아니라 폭발된 것임을 주장한다.

- 열역학 2법칙 엔트로피 증가법칙의 적용

1) 만일 우주가 영원하고 에너지 양이 유한하다면, 지금 열죽음에 도달했을 것이다. 2) 우주는 지금 열죽음에 도달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우주는 시작이 있었다. 5) 그러므로 우주는 첫 번째 원인에 의해 창조되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주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아퀴나스: 신존재는 언제나 우주론에서 시작한다.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는 전제는 논증을 쉽게 만들기 때문이다. 칼람논증: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은?? 1) 다수의 창조자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2) 우주의 원인은 초월적, 인격적 창조주를 전제한다.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적 존재 / 우주의 원인은 시공을 초월이므로 그 원인은 비물리적이다.)

[신존재논증 - 미세조정 논증(후험적 논증)]

세상은 왜 사람이 살 만한 조건으로 되어 있나? -> 인간중심원리

"우주와 관련된 몇몇 기본 상수의 값과 우주의 몇몇 초기 상태의 특이성 특정 종류의 우주, 곧 지적 생명체의 출현이 간소한 우주가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견해

"미세조정"은 우주의 다양한 상수들이 긴밀하게 조정되어 인간의 생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주 상수는 최소 10의 53승분의 1)

현재의 미세조정된 우주를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한 답변은 우연, 자연법칙, 우연+자연법칙의 결합, 창조주의 설계인데 앞의 3가지로는 특정성, 정보, 복잡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세조정은 설계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지성을 가진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다)

육지와 바다의 비율 = 3:7 (만약 5:5 라면 육지는 사막으로 변함)

대기 구성: 이산화탄소 비율 - 광합성 -> 지구 온도 조절

지구의 직경이 10% 커지면 -> 지구 표면적 20%증가, 지구질량 30%증가, 물의 증발이 감소되어 대기 순환구조 붕괴, 사막화

[신존재논증 - 지적설계 논증(후험적 논증)]

1. 우주는 목적론적이다.

우주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인간이 거주하도록 만들어졌고,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2. 빅뱅의 첫 순간

스티븐 호킹박사 "빅뱅이 있는 후 1초 후에 팽창율이 10의 17승 분의 1만큼 작았다면 우주는 현재의 크기가 되기 전에 재 붕괴, 반대로 1초당 팽창율의 10의 17승분의 1보다 컸다면 우주는 너무 팽창에서 우주는 지금 텅 비었을 것"

4. 이런 정교함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흔적이 아닐까 하는 논증 방식

5. 생화학 이론으로서의 지적 설계

- 박테리아 편모 / 지혈작용 / 박테리아 변이 과정 / 눈의 구조

[신존재논증 - 목적론적 논증]

자연의 질서와 목적을 통한 논증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신존재논증 - 도덕 논증(후험적 논증)]

CS 루이스 "옳고 그름"은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가 존재한다 /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는 자연법과는 다르다 /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도덕판단의 근거가 된다 /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 미적 직관을 통해서 알려진다

- 도덕 논증을 위한 3단 논법

- 1) 만약 신이 없다면, 객관적 도덕가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객관적인 도덕가치들이 존재한다.
- 3)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신존재논증 - 갈망 논증(신을 향한 귀소본능)]

1) 모든 자연스런 갈망은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다. 2) 사람은 초월적 성취를 향한 갈망을 갖고 있다. 3) 초월적 갈망은 초월적 신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다.

- 인격적 관계의 갈망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정치적 동물" / 빅토르 마리 위고 "삶에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는다는 확신" / 파스칼 "진정한 종교는 신을 사랑하게 만든다" / 기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적 - 공동체적 믿음이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이것은 내가 태양을 믿는 것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내 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다"

=> 갈망논증은 엄밀한 신존재 증명은 아니지만 인간이해에 대한 실존적 깊이가 있다. (주관적 체험의 호소)